

‘세월호 7 시간을 밝혀라.’, ‘이게 나라냐’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을 기억하는가?

0416 이 숫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참 예민한 문제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동기의 권유로 ‘기억 이음’이라는 세월호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 약 1 년 동안 활동 한 적이 있다. 실제로 목포항에 방문하여서 바다 속에서 견인된 세월호를 직접 본 적도 있고, 팽목항에 가서 희생자 아버지를 직접 뵈는 적도 있다. 그 외에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공부를 했었다. 처음에는 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일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이 외치는 ‘세월호 7 시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결해야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을 자주 뵈 수 있었다. 그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픔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뵈 수 있었다.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어머니를 뵈 수 있었다. 그 당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말 마음 아파해 하셨고, 정치인의 막말에 분통해 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옳지 못함에 맞서 싸우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또,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 기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버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 시간에 대한 기록’을 밝히고자 투쟁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 만든 노랑 나비 브로치를 너무 고맙다며 선물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팽목항을 지키시며 분향소 등 컨테이너만 남은 항구에서 홀로 “인양 뒤 관심 멀어지고 그리움과 기다림이 응축된 공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순 없다” 라는 신념 하에 팽목항을 지키시는 우재 아버님도 뵈 수 있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님은 분명 우리 부모님과 다름이 없는 또래의 일반적인 사람일 것인데, 거의 변호사라고 해도 될 만큼, 사건과 관련된 법 관련 지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2014 년 4 월 16 일 아침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던 평범한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을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투쟁하게 만들었는가?’

그러한 의문들이 막 20 살 성인이 된 어린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다.



활동을 하다가 보니, 정치적인 색이 동아리가 정치적 색을 띄는 것을 느끼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서 차차 활동을 줄이다, 나가게 되었다. 세월호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아무 입장을 가지지 않고, 1 학년 때 뭣도 모르고 했었지만, 참사의 희생자들을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싸우며, 사회에게 요구하고 투쟁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마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